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해운대구갑선거구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책자형 선거공보

“찍어찍어! 뽐아뽐아!”  
동네사람



# 박주언 소개서

무소속 기호 9번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해운대구갑선거구) -

## 1. 인적사항

| 기호 | 소속 정당명 | 후보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세)              | 직업  | 학력              | 경력                          |
|----|--------|--------|----|-----------------------|-----|-----------------|-----------------------------|
| 9  | 무소속    | 박주언    | 남  | 1978. 11. 1.<br>(41세) | 자영업 | 부산대학교<br>의학과 졸업 | (현) 민중의의원 대표<br>(전) 기장군청 근무 |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 재산상황(천원) |         |         |         |      | 병역사항           |                |
|----------|---------|---------|---------|------|----------------|----------------|
| 계        | 후보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후보자            | 18세 이상<br>직계비속 |
| 843,005  | 254,195 | 249,687 | 339,123 | 0    | 육군병장<br>(만기제대) | 해당 없음          |

##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 실적 및 전과 기록

|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        |        |       | 후보자<br>전과기록 |
|--------------------------------|--------|--------|-------|-------------|
| 구분                             | 납세액    | 체납내역   |       |             |
|                                |        | 체납액 누계 | 현 체납액 |             |
| 계                              | 66,125 | 0      | 0     | 없음          |
| 후보자                            | 63,219 | 0      | 0     |             |
| 배우자                            | 2,670  | 0      | 0     |             |
| 직계존속                           | 236    | 0      | 0     |             |
| 직계비속                           | 0      | 0      | 0     |             |

# 저는 동네사람입니다.

해운대에 사는 아내를 만나서, 해운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해운대에서 자라고, 예전 엄마가 다녔던 학교를  
똑같이 다닙니다. 식구가 모두 해운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늘 지나다녔고,  
지금 제 사업장도 해운대에 있습니다.

해운대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해운대가 삶의 터전인, 동네사람입니다.



# 저는 보통사람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신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만19세에 입대하여, 2년 2개월의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월세도 살고, 전세도 살고, 이사도 다녔습니다.

직장생활을 했고, 지금은 자영업을 합니다.  
매달 상가 임차료를 내고 있고, 직원 인건비, 물품대금 등  
각종 지출과 수수료에 고민하는 보통사람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입니다.



# 남의 어려움을 압니다.

산업재해 당한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감히 산업재해 근로자라 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한창 나이에 산업재해를 당했고,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에 8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것인데도,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때는 8개월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약할 때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별 것 아닌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아닌지, 혹 어려움이 되지는 않는지 늘 조심합니다.  
작은 일에도 꼭 입장을 바꾸어 생각합니다.

|                                                                                     |                |                                                                                                                |                               |
|-------------------------------------------------------------------------------------|----------------|----------------------------------------------------------------------------------------------------------------|-------------------------------|
|  |                | ○ 우리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해 재해발생에서부터 요양·보상 및 사회복귀까지<br>환자특성과 요양단계에 따라 「산재보상 맞춤서비스」로 최적의 의료·재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
| <b>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b>                                                              |                |                                                                                                                |                               |
| <b>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b>                                                       |                |                                                                                                                |                               |
| 관 리 번 호                                                                             | 603-82-04892-0 | 사업개시번호                                                                                                         | 통 지 구 분 ■ 지급결정                |
| 소속사업장명                                                                              | 부산대학교병원        | 현 장 명                                                                                                          |                               |
| 산재근로자성명                                                                             | 박주언            | 주민등록번호                                                                                                         | 781101-***** 재해발생일 2010-12-09 |
| 결정사항                                                                                | 이종요양비          | 승인(지급)여부                                                                                                       | 지급                            |
| ○ 수령인 : 박주언                                                                         |                | ○ 산재근로자와의 관계 : 본인                                                                                              |                               |

# 먼저 할 줄 압니다.

**희망의씨앗**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증

성명 **박주언**      기증희망자 서명       ☎ 1577-1458

등록번호 **001464361**

| 기증형태  | 등록일자       | 등록기관            |
|-------|------------|-----------------|
| 뇌사/안구 | 2018.01.08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 인체조직  | 2018.01.08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장기·인체조직기증 희망 문의 02.2628.3602    뇌사·사망 시 연락 02.2628.3643~5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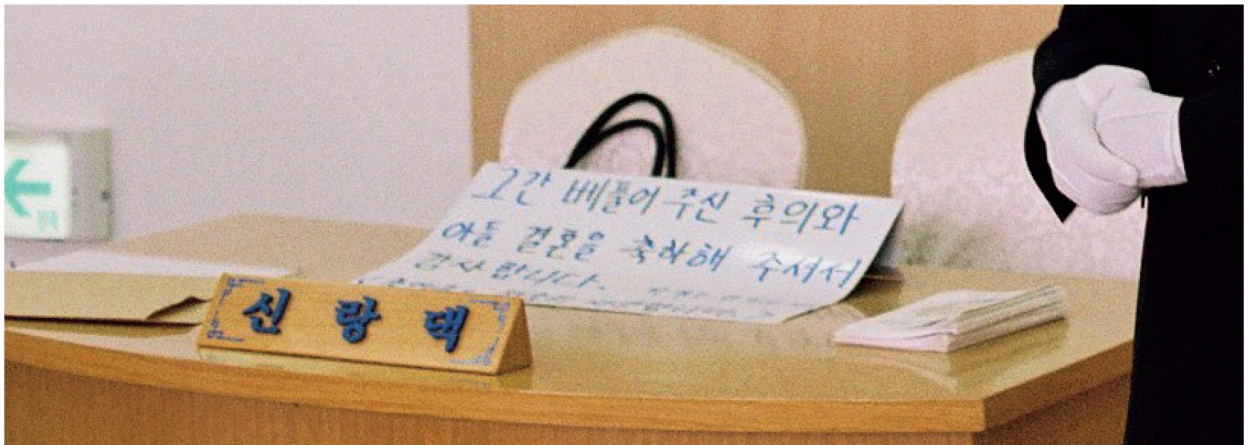
군청에 근무할 때,  
장기·조직기증  
등록업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포기할 줄 압니다.

부모님은 제 결혼식 때, 축의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간 많은 경조사비를 내셨음에도,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내 이익을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저희 집안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 직계존속도 고지거부 없이, 재산 상황을 모두 신고하였습니다.〉

# 잘 들을 줄 압니다.

시청에 근무할 때, 우연하게 노숙인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매주 무료 진료소에서 노숙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노숙을 하고, 집안 문제로 노숙을 한 사연들...

노숙인과 함께하며, 잘 듣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 사과할 줄 압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사과할 줄 압니다.



# 정치문화 바꾸어야 합니다.

구 의원은 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옆 동네에 필요한 예산을 내 동네로 뺏어오는 것이, 구 전체에 해가 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국가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지역도 없습니다.**

번지수 찾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의 일은 구의원이, 시의 일은 시의원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지방의원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의원을 도울 수 있는, 역할과 분수를 아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대표”를 뽑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작은 회사라도 직원을 뽑을 때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과연 “지역대표”로 적합한가를 따져야 합니다.

**나이, 열정, 능력, 인성, 실거주지, 살아온 길 등** 모두를 따져야 합니다.

선거공보를 꼼꼼히 비교한 후, 지역대표가 될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유력 정당의 후보가 좋으십니까? 정당의 도움을 많이 받은 후보일수록, 소속정당의 꼭두각시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내 생각과 반대라도, “당론”으로 정해지면 갑자기 거수기가 됩니다.

“국익”보다 “소속정당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표를 몰아주자! 될 사람을 찍어!”, “나랑 친한 사람이니 찍어!”

이 후보가 아닌 듯하지만, 주변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다구요?

당선여부를 따지고, 주변 눈치 보며, 남이 시키는 대로 투표합니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투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를 찍는 것이 투표입니다.**

비밀투표입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듭니다.

##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 1. 국익을 우선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당공천과 표심에 연연하고, 정치논리로 이해득실만 따진다면

국익을 우선할 수 있을까요? 혹시 “국익”이 아닌 “당선”이 목적입니까?

저는 정치권에 빛이 없고,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소신 있는 무소속입니다.

**지역주의와 정치논리를 뛰어넘어, 오직 국익을 우선하겠습니다.**

지역발전 공약이 없으니 뭔가 허전하시죠? 그런데 지역발전은 시장, 구청장 공약이어야 합니다. 대신 시장, 구청장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 2. 법령정비 하겠습니다.

기장군 근무 당시, 소속기관의 자치법규 17개 중 14개를 정비했습니다.  
불필요한 5개를 아예 폐지했고, 전부개정 7개, 일부개정 2개를 했습니다.

법령정비는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불필요한 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모두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법을 정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3. 예산심의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무관 시절,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오갔습니다.

저는 실세 국회의원을 통한 쪽지예산보다는,  
타당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을 선호했습니다.

**철저한 예산심의로 국가재정 낭비를 막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원칙에 맞게 편성되는지 늘 생각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OO의원 :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은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고 5억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기획청렴실장과 군수님과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청렴실장에게 듣기로는 10억을 하기로 군수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기장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제2차('19.4.19.) 회의록 마지막 부분 발췌



#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쓰는 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로 선출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복무는 당연한 의무였고,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의 기율이 엄한 51연대 수송부에 복무하였고, 육군병장으로 2000년 4월 15일 만기제대 하였습니다.

※ 20년 뒤, 2020년 4월 15일에 선거를 치릅니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자세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공지를 갖고, 군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유명하지 않은 동네사람이, 열정 하나로 출마했습니다.  
무소속에, 조직도 없고, 자금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로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 한 편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나 하나 꽃 피어

- 조동화 -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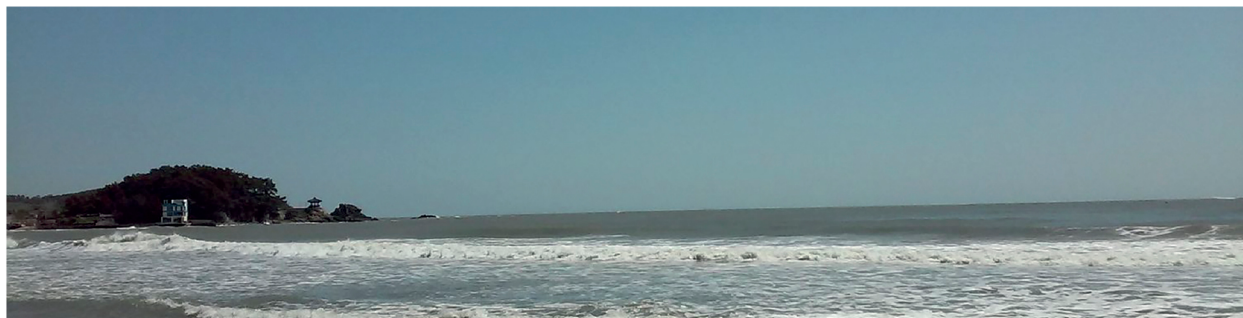
### 후보자 약력, 수상 및 활동.

#### <약력>

- 1978년 생, 본관 밀성(밀양 박)
- 밀성초, 밀양중, 밀양고 졸업.
- 육군병장 만기제대(최전방 사단)
- 부산대학교 의학과 학사
- 부산광역시 보건관리과 사무관(전)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사무관(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기술서기관(전)
- 현, 민중의의원 대표

#### <수상 및 활동>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부산지방경찰청장 표창
- 부산소방학교 외래교수(전)
- 부산광역시교육청 자문위원(전)



끝.